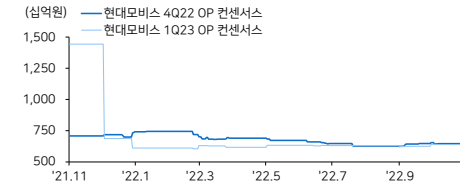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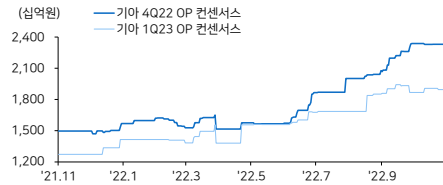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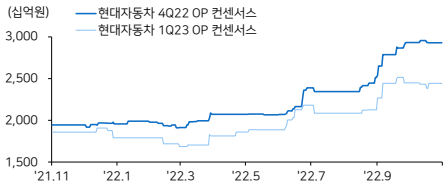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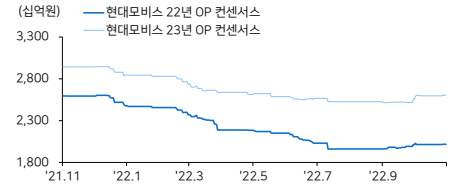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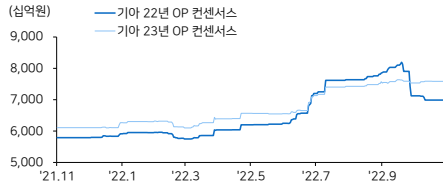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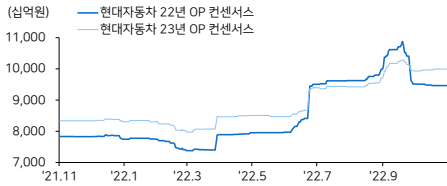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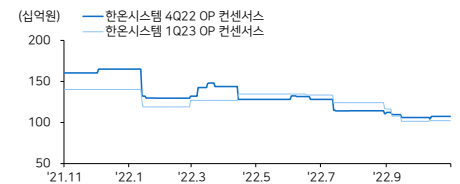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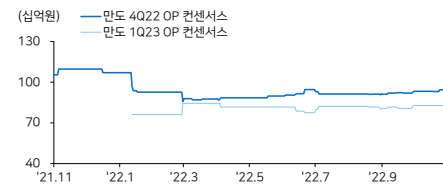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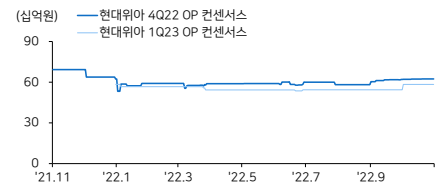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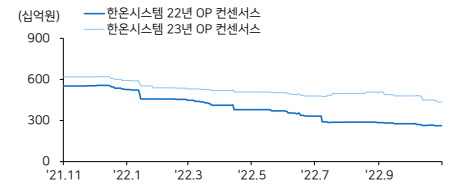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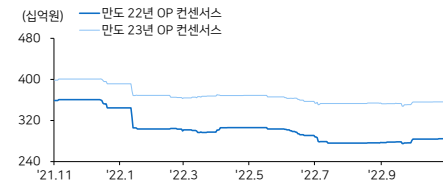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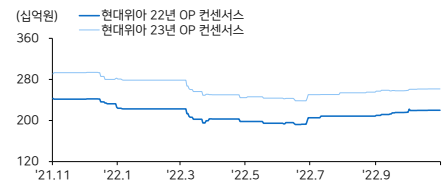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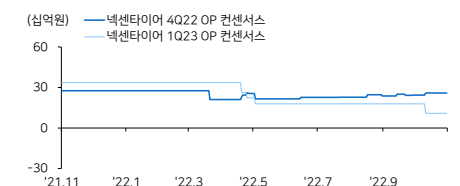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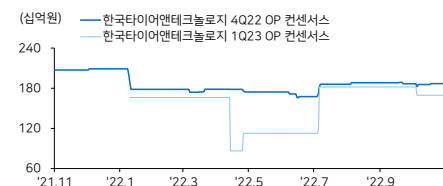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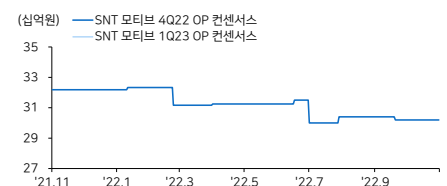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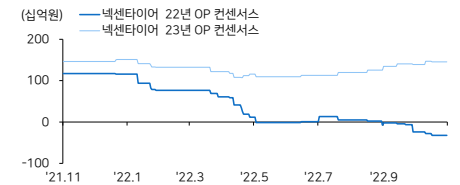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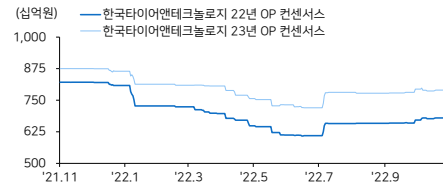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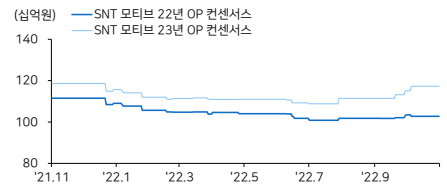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車 반도체 공급 완화에...현대차 납기 일정 빨라졌다 (이투데이)

1일 현대차가 영업 일선에 공유한 차량별 납기 일정에 따르면 현대차·제네시스 모델 대부분 대기 기간이 지난달보다 최대 5개월 빨라지는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며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ttps://bit.ly/3EXCexZ>

美 11월 현대차 아이오닉 판매 24.5% ↓ ...기아 EV6 46% 급감 (연합뉴스)

한국산 전가치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이후 4개월째 접어들면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력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ttps://bit.ly/3FkxUF5>

Toyota, Hyundai, Kia, Mazda, Subaru U.S. sales surge in November; Honda falls (Automotive News)

11월 미국 판매에서 토요타, 스바루, 마즈다, 현대차, 기아 등의 기업이 yoy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현대차 인도량은 43%, 기아는 25% 증가하였으나 현대차는 11월말 재고가 39,898대로 지난달 31,529대보다 증가한 수치를 발표.
<https://bit.ly/3Vnmbu0>

Tesla Semi Delivery Event news hub: Livestream and updates (electrek)

Tesla는 한국시간 12/2 오전 10시 Tesla Semi Delivery Event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미트럭 모델의 생산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으로 예상됨. 세미트럭의 첫 고객은 Pepsi가 될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VnnQGO>

전기차 보조금 설득 협공...정부·국회 협상팀 4일 미국 간다 (매일경제)

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한 정부·국회 협상팀이 4일 미국을 방문할 계획. EU와 한국 등 전기차 주요 생산국을 중심으로 IRA 법 관련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는 첫 방문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림.
<https://bit.ly/3ORbZnx>

교체식 배터리 전기차 편할 것 같은데...국내 도입엔 '현실성 부족' (뉴스1)

EV 시장에서 '교체식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짐. 교환 시간이 충전보다 빠르고, 먼저 도입한 중국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 활용도 가능하다는 주장.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표준화·시장규모 자이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https://bit.ly/3B2dHvL>

Tesla (TSLA) gives \$3,750 discount for Model 3/Y in the US this month (electrek)

Tesla는 12월 미국에서 인도되는 Model 3와 Model Y 차량에 대해 3,750달러의 '가격 조정'을 발표. 이는 2023년 IRA법안으로 인한 세액공제 발표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 바로 구매자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
<https://bit.ly/3XS2nql>

VW eyes Canada in search for first North America cell plant (Reuters)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는 북미 첫 배터리셀 공장 부지 탐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배터리 원재료 조달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던 캐나다가 합리적인 선택지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유럽 및 지역의 최초 차팩토리가 될 예정.
<https://reut.rs/3EXCGMH>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